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도전¹⁾

- 식량 수입국 다변화의 관점에서 -

(원저자) 타자와 히로유키(田澤裕之)*

허 덕**

1. 머리말

아르헨티나 공화국(이하 ‘아르헨티나’)은 남미 대륙 최남단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다. 팜파스²⁾라고 불리는 대평원을 중심으로 한 풍요로운 국토에서 농축산업이 발전한 세계 유수의 농축산물 산출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³⁾.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21년 9.7%로 2000년대 들어 배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곡물(밀, 옥수수 등), 유류종자(대두 등), 쇠고기 등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출대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지구의 거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먼 나라로만 치부하기 쉬운 나라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세계 유수의

1) 이 글은 田澤裕之, ‘アルゼンチンの農業の現状と課題-我が国の食料輸入先国多角化の視点から-’, 「PRIMAFF Review」, No.109, 2022.9, 농림수산정책연구소 (https://www.maff.go.jp/primaaff/kanko/review/attach/pdf/220930_pr109_03.pdf)의 내용을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PRIMAFF 국제영역 상석주임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2) 팜파스(Pampas)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하는 대초원이다. 남아메리카 대륙 파라나 강 하류에서 아르헨티나 중남부에까지 펼쳐진 광대하고 평탄한 초원 지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반경 500~700km로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데 내륙부는 건조하나 동부는 기름진 습윤 지역으로 밀 재배와 소 사육이 성한 아르헨티나 경제활동의 중심지임. 내륙 건조 지대에서도 목축업이 활발하다. 다른 이름으로 팜파(Pampa)라고도 하며, 넓이는 76만km²에 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 사전, <https://terms.naver.com/>)

3)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부문에 대한 자료로는 허 덕, ‘아르헨티나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6호(2022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1편)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2편) 제2편-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 및 유통구조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3편)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3편-아르헨티나 축산업 현황 및 축산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4편) -아르헨티나 농업정책과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5편) 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 정책: 수출세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농축산물 수출대국'이라는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식량 수입국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농업은 아르헨티나 최대 수출산업

아르헨티나는 밀(표 1), 옥수수(표 2), 대두(표 3), 대두유·대두박(표 4) 등의 곡물 생산, 유류종자 생산 및 가공의 이른바 올라운더(all-rounder)⁴⁾ 국가이다. 이들 품목들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량 비율도 비교적 높다.

2020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농산물(곡물, 유류종자·가공품, 기타 농축림수산물가공품)의 비율은 67%에 달한다. 즉, 농업은 아르헨티나 최대의 외화 획득산업임을 알 수 있다. 대두에 관해서는 대두 자체보다는 대두유, 대두박과 같은 대두 가공품 수출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표 1 세계의 밀 생산량·수출량(2020년)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수출량/생산량(%)
1	중국	134.2	1	러시아	37.2	43.4
2	인도	107.6	2	미국	26.1	52.6
3	러시아	85.8	3	캐나다	26.1	74.4
4	미국	49.6	4	프랑스	19.7	65.4
5	캐나다	35.1	5	우크라이나	18.0	72.3
11	아르헨티나	19.7	7	아르헨티나	10.1	51.3

표 2 세계의 옥수수 생산량·수출량(2020년)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수출량/생산량(%)
1	미국	360.2	1	미국	51.8	14.4
2	중국	260.6	2	아르헨티나	36.8	63.1
3	브라질	103.9	3	브라질	34.4	33.1
4	아르헨티나	58.3	4	우크라이나	27.9	92.4
5	우크라이나	30.2	5	루마니아	5.6	51.4

4) All-rounder의 사전적 의미는 '다재다능한 사람(국가)'. 스포츠에서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멀티 플레이어, 멀티 포지션,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용어 또한 비슷한 의미로도 쓰이고, 해당 단어들로도 검색해도 해당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각자마다의 뜻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표 3 세계의 대두 생산량·수출량(2020년)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No.	국가	생산량(백만 톤)	수출량/생산량(%)
1	브라질	121.7	1	브라질	82.9	68.1
2	미국	112.6	2	미국	64.5	57.3
3	아르헨티나	48.7	3	파라과이	6.6	60.0
4	중국	19.6	4	아르헨티나	6.3	12.9
5	인도	11.2	5	캐나다	4.4	69.8

표 4 세계의 대두유·대두박 수출량(2020년)

대두유			대두박		
No.	국가	수출량(백만 톤)	No.	국가	수출량(백만 톤)
1	아르헨티나	5.2	1	아르헨티나	
2	미국	1.2	2	브라질	
3	브라질	1.1	3	미국	
4	파라과이	0.6	4	네덜란드	
5	네덜란드	0.6	5	파라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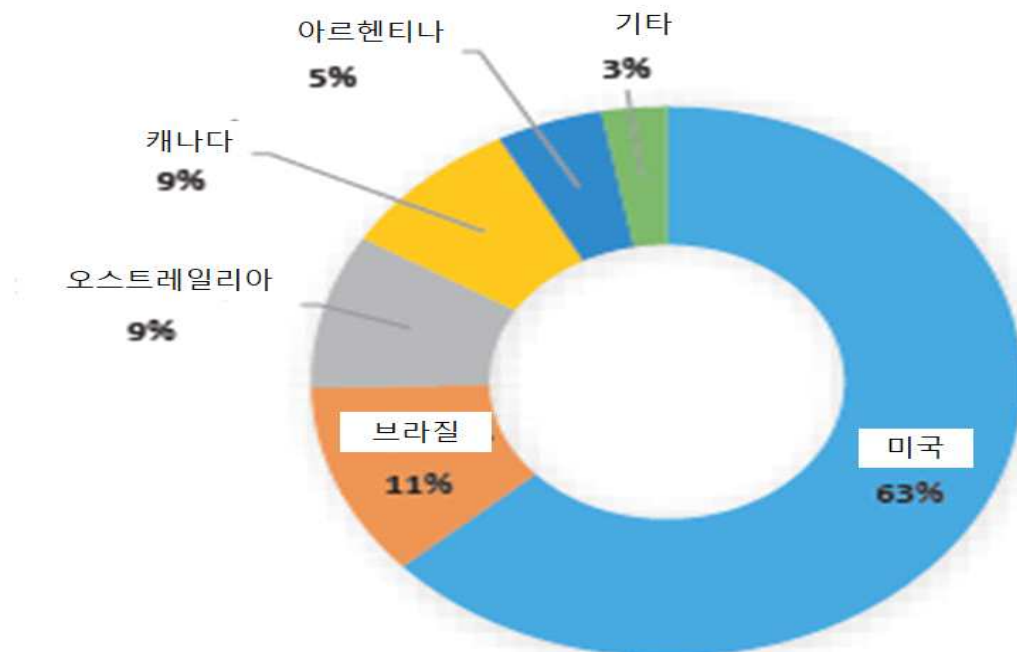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등을 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 대상국을 보면, 밀은 이웃한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대두는 거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의 수출 대상국은 알제리, 이집트나 베트남이 주를 이루지만,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다.

3. 아르헨티나와 일본의 관계⁵⁾

일본의 2021년 주요 5개 곡물 등(밀, 옥수수, 대두, 수수, 보리 및 쌀보리)에 대한 수입 대상국의 내역을 살펴보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도 약 5%의 수입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국가가 약 3% 정도로 나타나, 같은 해 아르헨티나는 5위를 차지하였다(그림 1).

5)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윤국, ‘아르헨티나 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8권 제6호, 2018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 2021년 일본의 수입대상국 내역(주요 곡물·유량종자(밀, 옥수수, 대두, 수수, 보리 및 쌀보리) 합계 수입 비중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로부터 원저자 작성. 田澤裕之, ‘アルゼンチンの農業の現状と課題-我が国の食料輸入先国多角化の視点から-’, 「PRIMAFF Review」, No.109 2022.9,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나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2021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일본의 식량 조달국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존재감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브라질이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일본에 대한 옥수수 수출량을 줄였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일본에 대한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이다(2021년 일본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수입량은 2001~2020년 평균의 2.5배 증가).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일본으로는 수수도 지속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가 일본의 수입선으로 가세함으로써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에 이은 형태로 일본의 식량 조달국 다양화가 도모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일본계 이주자 인구가 브라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대를 소중히 하면서, 양국의 교류·교역의 한층 더 축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며, 일본의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아르헨티나 농업의 과제

최근 라니냐⁶⁾ 현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상기후 빈발(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는 고온·건조에 의한 가뭄의 곡물 등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⁷⁾), 나아

6) La Nina.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라니냐(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고 한다. 라니냐 발생원인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온도는 열대 지역의 강수와 뇌우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상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열대 태평양 서쪽 지역에서 강수가 많고, 적도 태평양 동쪽에서는 강수가 적다. 해수면온도와 지역 강수의 평균 패턴은 열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하층 편동풍(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 그리고 상층의 편서풍과 관련이 있으며, 적도 태평양 서쪽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바람 패턴은 저기압과 그에 따른 상승 운동과 관련이 있다. 반면 동태평양에서의 바람 패턴은 고기압과 그에 따른 하강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태평양의 주된 대규모 순환인 워커순환(Walker Circulation)을 의미한다. 해수 구조를 살펴보면, 열대 태평양 서쪽에서는 온수층이 깊게 나타나고 열대 태평양의 동쪽에서는 비교적 얇게 나타난다. 이 온수대는 보통 서쪽에서 가장 깊고 동쪽으로 갈수록 해수면에 가까워지는 수온약층에 의해서 찬 심해층과 분리된다. 상층 해양의 평균 온도의 동서 차이에 의해 서쪽의 해수면 고도가 동쪽보다 높게 된다. 라니냐 상태는 동태평양의 하층 대기 편동풍과 상층 대기 편서풍이 강화되는 열대 태평양의 대규모 바람 변화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는 적도 워커 순환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라니냐의 성장기 동안에는 해수 구조가 열대 태평양 동쪽에서는 온수층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지고, 이로 인해 수온 약층의 깊이 또한 얇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 약층의 기울기는 유역을 가로질러 증가하게 된다. 매우 강한 라니냐 기간에는 확장된 기간 동안 수온 약층이 실제로 해양의 표면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혼합층이 얕아져 영양이 풍부한 물이 해수면 가까이 올라와 이 지역의 해양 생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해수면 고도는 동태평양에서 정상상태보다 낮아지며, 전 유역에 걸쳐 해양 표면 고도의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반대 현상인 엘니뇨 상태는 동태평양의 하층 대기 편동풍과 대류권계면 부근의 상층 대기 편서풍이 약화되는 열대 태평양의 대규모 바람 변화 현상이다. 이러한 상태는 적도 워커 순환이 약해졌음을 의미하며, 아주 강한 엘니뇨 때에는 이 워커 순환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엘니뇨의 성장기 동안에는 해수 구조가 열대 태평양 동쪽에서는 온수층이 비정상적으로 깊어지고, 이로 인해 수온 약층의 깊이 또한 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 약층의 기울기는 유역을 가로질러 감소하게 된다. 매우 강한 엘니뇨 기간에는 몇 달 동안 수온 약층이 실제로 열대 태평양 전체를 가로지르며 평평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수면 고도는 동태평양에서 정상상태보다 높아지며, 전 유역에 걸쳐 해양 표면 고도의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상백과, 기상청, <https://terms.naver.com/>)

7) 브라질의 곡물산업 관련 자료로는 허 덕, 김태련, 「브라질의 대두 생산 : 미국·아르헨티나와의 비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12월호(10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1편)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2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로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3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농업 2019년 회고와 대두 생산의 위상」,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2월호(10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브라질의 축산업에 관한 자료로는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 허 덕, 김중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브라질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가 코로나19⁸⁾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이 식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 등을 일으키고 있다⁹⁾.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시점에서 세계 20개국 이상의 식량 수출국이 자국에서의 식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¹⁰⁾.

아르헨티나에서도 2021년 12월 2021/2022년도산 밀·옥수수를 대상으로 국내 가격과 공급량을 고려한 수출 총액 규제를 설정하였다¹¹⁾. 아르헨티나는 이전부터 재원 확보를 위해 고율의 곡물 수출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 외에, 곡물의 수출 감시 강화를 위해 정보 등록 조치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 수출을 정부의 강한 통제 하에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는 항상 강한 긴장 관계에 있고, 단체 측은 파업이나 곡물 공급 거림 등으로 정부에 맞서 종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또 경제 전반에서도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율¹²⁾이 연 60%를 넘어 과거 30년간 최고치를 경

참조하기 바란다.

8) 코로나19가 아르헨티나 농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 브라질·아르헨티나, 호주의 농업’,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2022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농업부문 영향에 대해서는 김지연, 김종진, 윤성주, 이미숙, 강윤정,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과 전망」, 현안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7월 28일 게재 (<https://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Id=530639>)와 김종진, 김지연, 정대회, 박성진, 김법석, 윤성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3월 31일 게재 (<https://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0&pageType=010301&bibliId=530018&pageUnit=10&searchCnd=all&searchKwd=&pageIndex=1>)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IFPRI (Apr. 2022), Documentation for Food and Fertilizers Export Restriction Tracker

11)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세에 대해서는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5편) 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 정책: 수출세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 또는 물가상승(物價上昇)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물가상승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 조용(刁踊), 고등(高騰), 등귀(騰貴), 앙등(昂騰)이 있다.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현상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의 주요원인으로는 유통되는 통화공급 증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학파별로 차이가 있다. 또,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팽창뿐 아니라 소비자 투자, 재정지출 등 수요 확대에 의하여 생긴다. 이것은 그러한 부문에서의 초과수요를 통하여 물가의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는 종합물가지수(소비자종합물가지수)이다. 이것이 단위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가 인플레이션이 결정되는 요소이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 증가의 불확실성은 투자 및 저축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높다면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생필품을 비축(사재기)할 것이기 때문에 물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비 화폐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 곳에 있는 귀금속들이 유럽으로 운송되었다. 1547년부터 1660년 사이 은 1만 8000톤과 금 200톤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유입되었고 스페인의 왕은 이들 귀금속으로 그의 외채를 상환했으며 전쟁 경비를 충당했다. 그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방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럽에 퍼져나갔다. 유럽에서 귀금속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상승했다. 서유럽에서 16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 사이에 밀 가격이 4배 올랐고 스페인에서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3~4배, 이탈리아에서 1520년과 1599년 사이에 3.3배, 영국에서는 16세기 1/4분기와 4/4분기 사이에 2.6배, 프랑스는 2.2배로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화폐와 물가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전개되었다. 앙주 출신의 법률가 장 보댕이 화폐와 물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면 서

신하는 한편, IMF와의 채무조정이 병행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일련의 정책은 식량 수출 강국인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경제·재정 재편을 도모하면서 자주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불안정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 갈 필요가 있다.

5. 신흥국 그룹과 아르헨티나

브릭스(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5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브릭스 내 교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³⁾. 아르헨티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함께 2022년 6월 브릭스 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그림 2).

아르헨티나는 앞서 2022년 2월 중국의 일대일로¹⁴⁾ 구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인플레이션을 처음으로 명명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불환지폐(不換紙幣)의 남발에서 유래했다. 당시 전비조달의 방법으로서 조세징수, 공채모집을 할 수 없었으므로 녹배지폐(錄背紙幣=green back)라 불리는 불환지폐를 남발하여 이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통화가 사회의 수요량과는 관계없이 팽창하여 그 상태가 마치 공기를 봉지에 넣어 넣어 이를 팽창시킨 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의미는 이와 같이 불환지폐의 남발에 유래하나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란 사회의 화폐수요량에 대해 화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속적 팽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등귀하여 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화폐증발(貨幣增發)에 의한 물가등귀가 인플레이션이 되는가 명확치 않다. 이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 완전고용으로 된 이후에 있어서 화폐가 증발된 경우에 생산량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이 상승한다고 설명하고 이 현상이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였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란 노동이 완전 고용되고 또 자본도 완전이용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말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비(주로 임금)의 증대에 기인하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수요증대에 수반하는 물가를 디멘드 인플레이션(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성격이나 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필요한 화폐량보다 지폐를 많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지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은행의 대출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상태, 즉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하여 기업의 과잉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일어나는 것을 신용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또 국제수지의 지불초과로 인하여 수환율이 급작스럽게 오르고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내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환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수요의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요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코스트의 상승에 물가상승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부른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 가격상승률).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이며 이들은 각각 소비자와 생산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3)IHS Markit (Jul. 2022) , Global Trade Atlas

14)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 ~ 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현재 14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 내륙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구축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

있으며, 최근 이들 신흥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BRICS 회원국과 일본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아르헨티나가 정식으로 BRICS에 가입할 경우 브라질 등 기존 회원국과의 관계와도 공통되지만, 일본이 식량 공급원으로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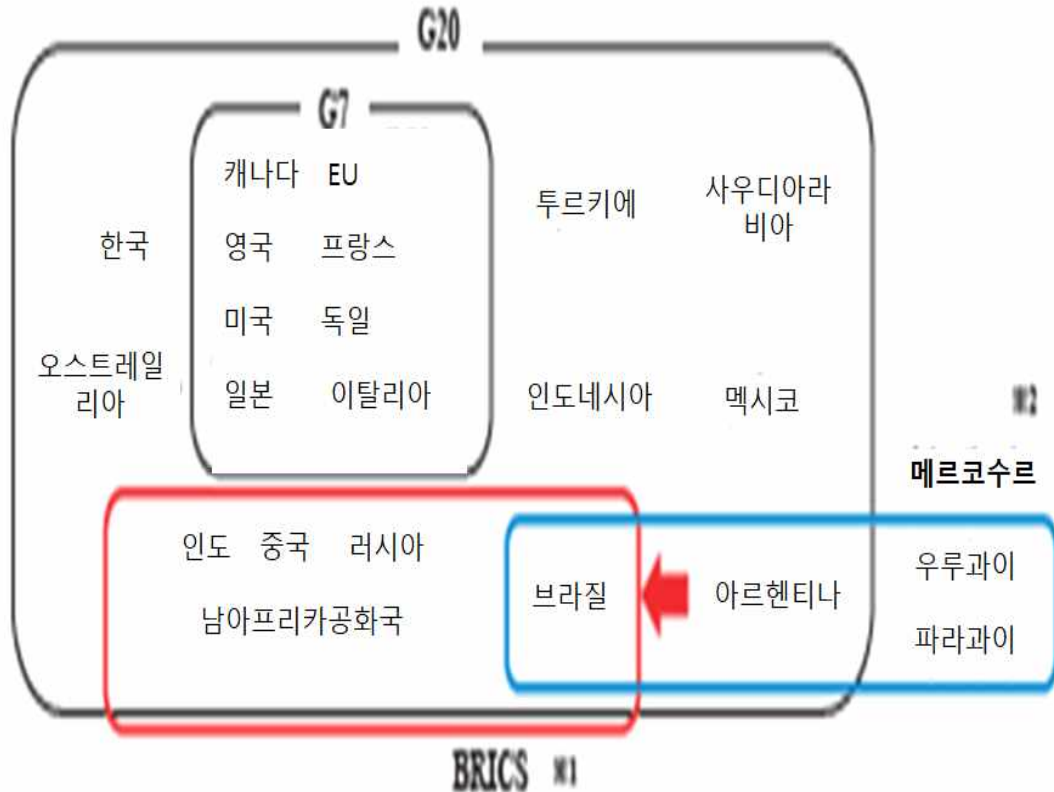
PRIMAFF가 발표한 ‘2031년 세계 식량수급 전망’에서는 중남미의 주요 수출작물인 옥수수과 대두 수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⁵⁾. 일본의 미래 식량 공급 확보¹⁶⁾ 차원에서 남미 국가와의 연계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르헨티나의 곡물수출규제 등의 정책이나 BRICS·중국 접근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는 해양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일대일로로 서막이 열렸다. 한 달 후인 2013년 11월 제18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연선국가(沿線國家)들과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상호 연계와 소통을 확대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실크로드기금을 설립(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신(新)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AIIB와 함께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성 금융기구인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17년 현재 80개 회원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약140여 개 회원국 및 31개 국제기구와 협력문서를 체결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国际合作高峰论坛)’이 개최되었고, 각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일대일로 건설계획 협력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만일,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탄생한다. 인구 44억 명(세계 인구의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회랑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소통을 실현하고, 지역 간 협력 기초를 함께 다져나가기에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일대일로 공동구축 전략구상 제안은 연선국가 순방 시 각 관련 국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은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서부대개발2), 중부굴기3), 동북3성 진흥4) 등의 국가급 프로젝트와 대외적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셋째,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급측 개혁을 위한 과잉생산 및 과잉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https://terms.naver.com/>)

15) 농축산업진흥기구, <http://www.maff.go.jp/primaff/seika/jyukyu.html>. 또는 허 덕, ‘일본 PRIMAFF의 세계 식품 수급 동향과 중장기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5호(2022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일본의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세계의 식량 문제와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2022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 지역통합 모식도(아르헨티나 및 관련국)



※ BRICS 신흥 5개국의 총칭(붉은 색 네모)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남부공동시장(파란 색 네모)

6. 맺음말

식량안전보장을 고려할 때 실시해야 할 시책은 첫째, 국내에서의 식량자급률 향상이 있다(2021년도 38%). 구체적으로는 농지·물이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체 확보, 스마트 농업 등 농업기술 수준 향상 등을 통한 식량 공급력 확보·향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식량 공급 부족 시에 대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식량 비축의 운용이다. 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들 수 있다.

식량 자급률을 뒤집어 보면, 일본 식량의 62%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주요 수입국가와의 양호한 무역 관계 형성에 의한 안정적인 식량 수입의 확보는 자급률 향상과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당면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단골 식량 수입처 4개국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는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이 식량 수입처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식량을 비롯한 물가 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식량 공급에 불안감을 느끼는 오늘날, 이 글이 먼 나라로 여겨지기 쉬운 아르헨티나의 농업·농정과 일본의 식량 안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농정포커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3월 31일 게재
- 김지연, 김종진, 윤성주, 이미숙, 강윤정,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과 전망」, 현안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7월 28일 게재
-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1편) 아르헨티나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2편)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 및 유통구조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3편) 아르헨티나 축산업 현황 및 축산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4편) -아르헨티나 농업정책과 특성」,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국, 「[특집: 아르헨티나의 농축산업] (제5편) 아르헨티나 농산물 교역 정책: 수출세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1호(2021년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국, 「아르헨티나 신 페르난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한-아르헨티나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8권 제6호, 2018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
- 허 덕, 「아르헨티나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6호(2022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브라질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일본 PRIMAFF의 세계 식품 수급 동향과 중장기 전망’, 「해외곡물시장 동향」 11권 5호(2022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종진,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 브라질·아르헨티나, 호주의 농업’,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2022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종진, ‘세계의 식량 문제와 일본의 식량안전보장’,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3호(2022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태련, ‘브라질의 대두 생산 : 미국·아르헨티나와의 비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12월호(10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1편)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 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2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로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3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농업 2019년 회고와 대두 생산의 위상’,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2월호(10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田澤裕之, ‘アルゼンチンの農業の現状と課題-我が国の食料輸入先国多角化の視点から-’, 「PRIMAFF Review」, No.109 2022.9, 농림수산정책연구소

IFPRI(Apr. 2022), Documentation for Food and Fertilizers Export Restriction Tracker
 IHS Markit (Jul. 2022),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http://www.maff.go.jp/primaff/seika/jyukyu.html>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 지식백과 기상백과, 기상청,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재무성, 「무역통계」